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개표가 진행 중이던 12월 19일 밤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매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국립현대미술관을 찾은 이명박 당선자는 방명록에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 마음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명박 당선자가 품은 초발심(初發心)이다.

사실 이명박 당선자가 2위보다 530여만 표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5년간 노무현 대통령의 오만과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명박 당선자는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고립되었던 이유는 시대정신을 잃지 못하고 국민의 여망에 역행하는 일들에 매달렸다는 것이다. 21세기 세계질서는 탈냉전의 과정을 거쳐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실리보다는 이념에 집착하였다. 역사 바로 세우거나 과거사 청산이라는 생산성 없는 각종 진상규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잊고 싶던 아픈 기억들만 다시 상기시켜주는 역할만 하였다. 세



**불자 세상보기**

정용길  
동국대학교 교수

**박수 받는 대통령의 조건**

계의 시대적 흐름에 함께 편승하지 못하고 과거 회귀적 사고에 매몰된 형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또 다른 문제는 이른바 코드 인사였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자신의 지지자들만 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정파만을 퍼다보니 일반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당선자도 2위 후보보다 530여만 표의 차로 압승하였다고는 하나, 과반수 득표에는 실패하였다.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지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자가 될 수도 있다. 대선이 끝나자 어느새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명

박 당선자의 정부도 당선자와 같은 동향출신, 동문출신, 그리고 같은 종교인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코드인사나 눈공행상보다는 능력 있는 인재들 널리 골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노무현 정부와 차별이 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실수를 하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적절치 못한 잦은 언행으로 정치적 구설수에 휩싸여 왔다. 이명박 당선자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기간 중 "애를 낳아 보아야 보육을 한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또 서울시장 시절에는 "서

울시를 하나님께 봉정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한국에는 기독교신자도 있지만 불교신자도 있고, 또 타종교신자들도 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종교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 일이다. 이러한 작은 말실수가 자칫 대통령의 인격과 품성에 흠집을 내고 권력의 누수현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다.

권력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괴물이다. 그것은 권력자를 변화시키는 마력도 갖고 있다.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도덕이나 인(仁)을 요구하는 것이다. 권력이 법이나 제도에서 나올 때 그 권력은 제한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무제한으로 사유화되고 포악해질 수 있다. 법은 도덕이나 인(仁)보다 지키기가 쉬운 편이다. 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덕이나 인(仁)을 요구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법치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 후보는 당선자가 된 후 "두렵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국민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그의 앞에는 당장 BBK사건 관련 '이명박 특검'이 기다리고 있고, 그에게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등 산적한 난제들이 놓여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은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매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초발심만 지닌다면 해결할 수 있다. 초발심만 지닌다면 떠날 때 박수 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자의 눈**

**악업 성찰하고 행복을 가꾸자**

- 또 한해를 보내며 -

한해의 끝에 서 있다. 끝이라는 말에는 새로운 시작이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시작도 끝도 없다(無始無終)는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한 해가 끝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그저 인간이 규정해 둔 시간의 분절체가 새로운 이틀을 갖는 것일 뿐. 그러나 유상(有相)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해가 온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준다.

2007년 한 해 동안 불교계는 정말 분주했다.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신정아 사건이 조계종립 동국대학에서 비롯되었고 그 덕분에 동국대학의 인사체제 시스템이나 각종 검증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거기 개입된 스님들의 권력싸움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스님들의 권력싸움은 제주 관음사의 주지인사로 인한 대치 국면과 마곡사 주지의 비행으로 극에 달하기도 했다. 일반 국민들은 "그게 정말 불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요즘 스님들은 정말 그러하냐?"며 불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그런 가운데 범람사 결사 60주년을 기리며 자정고 성찰의 다짐도 있었다. 비록 그 다짐이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았지만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국민의 눈초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우치고 새로운 승가상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값진 것이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교계의 행보도 분주하고 어수선 했다. 그러나 불교계는 대선 구도에서 크게 중심을 잃지 않았다. 일부 단체가 '졸대기' 행보를 보여준 것지만 불자후보가 없는 가운데 치러진 대선에서 불교계는 대체로 제자리 지키기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해를 돌아보면 보람된 일보다 아쉬운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나마 발전도 있을 것이다. 불교계의 2007년 한 해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은 것이라는데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잃은 것이 많은가를 따져 봐야 한다. 탐욕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 탐욕이다. 그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정진하는 집단이 불교계라고 본다면 자못 숙연한 마음으로 현실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몇몇 스님의 이름이 모든 뉴스를 도배하는 상황은 분명 헛된 탐욕의 끈을 끊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시한데 따른 과보였다. 몇 사람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전체의 불자들이 과보를 받는 일은 참으로 황망했다. 한 사람의 학력위조에 졸출이 엮여 있던 탐욕의 사슬들이 드러나는 동안 참불자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오죽했는가?

이제 조용히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들끓는 욕망을 억제할 이상의 힘을 기르기 위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시간은 흐르는 물이어서 가벼운 것은 동등 떠 띄워 데려가고 무거운 것은 바닥에 가라앉히고 지나간다. 2007년이라는 시간에 떠 있는 것과 가라앉은 모든 것을 조용히 응시하며 탐욕으로 빚어진 악한 인연들을 하나하나 성찰하고 선한 인연의 고리로 환치하는 지혜를 길러보자. 그나마 행복이라는 이름의 내일이 올 것 아닌가?



**'종교자유' 칼럼**

41. 불교에 바리다 <끝>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세상을 꺼안고, 국민의 행복과 고통을 함께 하라**

정말 다사다난했던 정해년(丁亥年)을 대선으로 마감했다. 딱히 마음에 드는 후보도 없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볼 겨를도 없이 기싸움만 구경하다가 투표한 기분이다. 그러다 보니 분풀이하듯 '묻지마 투표'를 한 사람도, 짚짚하지만 대안이 없으며 투표한 사람도 상쾌하지 않은 것 같다. 또 많은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으며 투표 자체를 외면해 버린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시대정신'은 실종되고 '시대상황'이 만들어낸 대통령이 된 시간이 존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매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그대 주길 바란다. 특히 "위기에 처한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분열된 우리 사회의 화합과 국민통합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추진력과 도덕성 사이를 아슬하게 줄타기했고,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당선자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그의 몫이다. 그동안 공사(公私)의 엄격한 구분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알아차렸을 것이고, 빠른 머리 회전보다 한 숨 거뜬 신중함 말이 필요하다는 것도 절감

했을 것으로 믿고 싶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당선자의 말대로 자신을 낮춰야 하는데, 종교문제만큼은 낮은 자세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 독선적인 기독교와 무책임한 정부를 생각할 때 이명박 정부에서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나칠까. 그동안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 불현' 등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종교편향적 언행을 했던 전력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보수 기독교계의 '정로대통령 만들기' 움직임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을 감안하면 당선자의 행보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단순한 기우만은 아닐 수도 있어서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불교계는 시대흐름을 차분히 지켜보고 사회와의 관계설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여 불교계에 간절히 바란다.

첫째, 교단내부 정리가 시급하다. 교단 내 권력싸움으로 날이 샌다면 불교의 앞날엔 희망이 없다. 빠른 기술과 있는데 자기 보따리만 챙기고 있는 격이다. 교계 안에서는 자리다툼으로

출가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언행마저 마다하지 않으면서 정작 사회로부터 오는 부당한 대우나 불의에는 반박 대응 아니면 관용이니 무어(無網)니 하며 슬그머니 공무니를 빼는 소위 교계지도자들의 위선은 슬프기까지 하다. 불자들이 위축되어 기를 펴기 어려운 이유다.

둘째, 세상을 꺼안으라. 파해의식과 자폐증에서 벗어나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산중에서 갇혀 있거나 경전 속에 묻혀 있어서 안 된다. 불교는 사회와 호흡하고 소통하는 연습을 더 해야 한다. 사회의 고통과 구조적 모순은 불교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누군가 나서서 해주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노예근성이든 무임승차에 다를 아니다. 특히 불교가 종교인권의 침해와 종교적 차별을 방관해온 것은 어떤 이유라도 변명이 될 수 없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정치보살 · 경제보살 · 통일보살 · 인권보살 · 환경보살 · 복지보살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전과라는 절대적 명의를 감싸 안아야 하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연

기(緣起)의 법칙이고 동체대비요 공업중생(供業衆生)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셋째, 정치권과 거리를 두라. 종교지도자의 이해받을 행동은 금물이다. '무심(無心)과 '의식 없음'이 혼동되고 '겸손'과 '비굴'이 구분되지 않으면 지혜롭고 용기 있는 종교지도자가 아니다. 권력의 언저리에서 어슬렁거리며 멍멍치 못한 이익이나 챙기려 단단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정치인이 찾아오는 것을 뚫어지게 물리칠 줄 알아야 하고, 더구나 자칭하여 만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알아야 한다. 종교 입장에서 보면 정치권력은 '꿀'이기보다 '독'이기 십상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민과 함께 하라. 2007년은 유난히 종교가 사회문제화 된 해였다. 우리 사회의 이념 괴임 못지않게 종교괴임이 국민을 괴로하게 만든 감이 없지 않다. 강의석씨 사건의 승소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재확인한 성과도 있었지만, 사립학교법 공방과 아스킨 피랍 사건으로 기독교의 오만과 권력화에 분노했고 동국대 신정아 사건과 주지선거와 관련된 돈거래와 패거리문화로 불교계는 국민을 얼마나 실망시켰는가. 불교만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바르게 판단하고 당당할 수 있어 사회적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종교로 세상을 말해 왔지만 이제는 세상으로 종교를 말해야 할 시대인지도 모른다. 무자비(成子年) 새해에는 "머무르는 바 없이(應無所住) 그 마음을 내(自生其心)", 세상을 꺼안는 불교, 국민의 행복과 고통을 함께하는 불교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심성 정화교육**

#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들의 수련장이며 조선시대 승병들의 동맹인 본부였던 함월산의 전통사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성단련을 위해 제 32회 겨울 수련회를 개최 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를 통한 심성 정화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외국인 사범과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캠프』로서 주지스님이 직접 불교 강의와 인성 교육을 지도합니다.

**\* 연 제 :** 2007년 12월~2008년 2월

**\* 모집인원 :** 수시모집(1주, 2주, 3주, 한달 이상) 매주 일요일 입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20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1개월씩 4회 이상 수련 시 1만 5천원 심사 자격 부여)

**\* 대 상 :** 초등, 중등 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련회비 :** 1일 3만원 · 1주일 21만원 · 1한달 7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설기춘 골굴사)

**\* 접수 및 문의:** Tel (054) 745-0246, 744-1689  
Fax (054) 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 수련내용:**

1. 불교의 아나파나사티 명상 · 선요가 · 선기공 · 선무술 · 불교한문 · 전통문화(한소리, 승가, 다도, 전통춤)
2.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수련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 (이명미 교수님, 무용학)
3. 주지스님의 초발심자정공과 부모모중경 강의를 통해 인성교육 및 한문공부
4. 매일 영어회화를 원어민이 지도합니다.
5. 화랑의 기상과 호연지기를 느끼는 승마체험.

**\* 준비물:** 세면도구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개인 컵  
장갑 · 모자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일과표	시간	내용	시간	내용	시간	내용	시간	내용
5:30	기상	10시	오전 선무도 수련	13시	독서와 사색	18시	저녁 공양	
5:30	새벽 예불 · 좌선 및 행선	11시	108배 참회기도	14시	전통문화 감상(한소리, 다도, 승가 등)	19시	저녁 예불	
7시	아침 공양(주 1회 발우공양)	12시	· 자아를 향한 서원	15시	오후 선무도 수련 · 등산	19:30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8:30	불교 강의 · 영어회화	11시	점심 공양	16:30	올레(도랑 청소 및 정리)	2시	점유 및 취침	

◆매주 1회 성지순례 : 장항사지 · 감은사지 · 문무대왕릉 등

**1500년 전통사찰 · 연인원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 · 선무도 대학**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 좋은만남 멋진이별

글 자광스님 / 정가 10,000원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탄생하거나 또 심판의 국토를 지나 왕생하거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범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나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숨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심상사 주지 · 前) 화양산 봉암사 주지 · 前) 운일산 김릉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前) 한재 김릉사 회주 · 前) 현대 문경불교대학 학장 · 자광스님의 중도가(龍潭歌-이름 없는 풀이 없듯 인연 없는 중생 없네) 출판

**현대 불교**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